# 실크로드는 '인류문화 운하'

## 한국불교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류문화 운하'라 불리는 실크로드는 서역과 중국을 잇는 경제 · 문화 통로였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진 것도 실크로드가 있어 가능했다. 실크로드 유적 중심인 돈황 석굴이 관광객 증가와 지하수 고갈 등에 따른 심각한 훼손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이하 연구원)과 중국섬서사범대가 7월 5일 공동으로 '실크로드와 불교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주위주 교수(中, 섬서사범대 서북민족연구중심)와 정병조 교수의 기조강연을 소개한다.

7월 5일 열린 '실크로드와 불교문화' 주제 국제학술회의. 왼쪽부터 김영희, 주위주, 정병조, 허남결 교수.

**# 실크로드는 불교전파 루트**

주위주 교수는 기조강연 '3~9세기 실크로드 상의 서북민족과 불교문화의 전파'에서 "실크로드는 불교 등 경제, 문화를 교류시킨 중 · 서방 교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1세기 전후로 카시미르에서 비로자나, 아라한이 우전(현 신강 화전)에 불법 전파를 위해 왔다"고 소개하며, "우전왕의 찰마대사 건립이 중국 신강성에 불교가 전파된 시점"이라 설명했다.

주위주 교수는 "서역 구자(현 신강 쿠차), 소륵(현 신강 카쉬가르), 고창(현 신강 투르판) 등지에도 잇따라 불교가 전파돼 가람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1~2세기 도성에 가람이 대대적으로 조성되면서, 천축 풍 석굴과 간다라식 불상과 벽화 등 불교예술이 우전, 고창, 구자 등지에서도 발전했다.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발전한 이유에 대해 주 교수는 ▲불교가 윤회보응설과 기복소화의 영험을 통해 정신적 의지처로 작용했고 ▲청담을 존중하는 풍조와 불교의 취지가 같은 점, ▲월(?)족의 양자강과 회수 이북 점령으로 불교가 북방 민족의 신앙이 된 점을 들었다.

주위주 교수는 "서북 모든 민족이 16국시대 전후로 불교를 믿고 불법을 홍양하는데 힘 쏟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북 민족의 불교 흥성에 대해 "고창, 언기 등지는 모두 불법을 숭신했고, 우전에서는 세인들이 불법을 중히 여겨 사원과 탑, 승니가 많았다. 특히 왕은 스스로 청소하며 공양을 올렸다. 구자는 1000여 불탑이 있고, 승려는 1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위주 교수는 "신강 남로에 현존하는 석굴, 사원 유적이 특히 많다"며, 서진 시대 건립된 쿠차의 쿠무툴라 천불동, 베제크릭 석굴 등을 예로 들었다. 주 교수는 "석굴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석굴 조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위주 교수는 "3~9세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입된 불교와 불교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했기 때문에 인도, 중앙아시아 승려들이 중원에 들어와 홍법, 역경하거나 중원 승려의 인도 구법활동 등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활동과 수반해 상호교류가 이뤄져 관련국 혹은 민족사에 추측 불가능한 작용을 하며 발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한국 구법승 두타행 남달랐다**

정병조 교수는 '비단길과 한국불교'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실크로드를 넘나든 한국 승려들과 서역승려들의 행적과 사상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해졌지만, 인도로부터 직접 전래됐을 가능성도 짙다"고 말하며, 김해 · 구포지역에 다수 분포한 아쇼카대왕과 관련된 불상과 탑, 한라산 존자암 연원에서 보이는 아라한 관련 설화, 수로왕의 부인 허황후가 인도인이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인도 파트나에 위치한 나알란다 사원에는 고대 불교대학이 있어 많은 구법승들이 찾았다. 정 교수는 "나알란다 사원에서 여러 명의 신라 스님과 한 명의 고구려 스님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야발마(Aryavarma)는 신라에서 중국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스님으로 나알한다사에서 율과 논을 익혔다. 혜업 · 현태 · 현각 · 현조 법사와 함께 혜륜 선사 등도 신라에서, 인도 나알란다 사원에서 불교를 배웠다. 신라 진골 출신으로는 무루 스님이 있었고, 고구려 승려로는 현유 스님이 있었다. <속고승전>에 기록된 신라에 <80화엄경>을 전한 원표 스님은 고구려 유민이었다.

정병조 교수는 "원표 등 구법승려들의 인도 여행은 성지 참배, 교학 연구, 두타행 등으로 구분된다"며, "구법 승려들이 활약한 7~8세기를 전후한 시기는 인도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불교가 쇠퇴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대승불교가 정착돼 발전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구법승 중 혜초 스님이 저술한 <왕오천축국전>은 실크로드 인근 서역 연구분야에 귀중한 자료로 8세기 전반 인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라 말했다.

정병조 교수는 "동서문화 교류지로 독특한 전통체계를 지닌 서역불교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중국학자는 소수민족 연구자인 이기 교수(섬서사범대 서북민족연구중심)가 '실크로드상 중앙아시아 구간의 박트리아 예술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를 발표하고, 나당 관계사를 전공한 배근흥 교수(섬서사범대 역사문화학원)가 '입당구법, 당과 신라불교문화교류의 교량을 가설하다'가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우제선 교수(동국대)와 황순일 교수(동국대)가 각각 '실크로드와 그 연관 지역출토 법화경의 범어사본'과 '오럴 스타인, 실크로드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계상정거도'는 졸렬한 가짜

## 이동천 박사, 서울대 특강서

1000원 지폐에 그려진 '계상정거도'.

"1000원 지폐에 실린 '계상정거도(보물 제585호)는 아마추어 수준의 위조자가 만든 졸렬한 위작입니다."

2008년 5월 20일 발간된 <진상-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동아일보사 刊)에서 "1000원권 뒷면 그림 등 서화작품 90%는 가짜"라 주장한 이동천 박사(서울대 동양화가 작품감정론 강사 · 사진)가 강연에서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7월 5일 서울대 멀티미디어동에서 '계상정거도 왜 가짜인가'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동천 박사는 ▲화폭에 그려진 부분만으로 감정 ▲화폭 그림과 장표 부분 감정 ▲그림과 실물 비교를 통한 감정 등 3부로 나눠 '계상정거도'가 가짜임을 밝혔다.

이 박사는 "'계상정거도'는 작품의 본질적 부분인 필획과 묘사 등이 진작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우화등선' '불정대' 등 정선의 다른 작품을 소개했다.

이동천 박사는 "정선의 붓놀림은 굳세고 빨랐다. '계상정거도'는 느리고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필획과 어설프고 유기적이지 못해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사물 묘사를 하고 있는 등 위작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잠미, 사미, 필근, 화수 등 필획의 결미를 통해 정선 특유의 필획을 정리한 이 박사는 "기와지붕, 소나무, 물결 묘사 등 '계상정거도'는 정선의 다른 작품과 확연히 비교되는 졸렬한 위작"이라 평가했다.

'계상정거도'는 표구 부분까지 그림이 그려졌다. 이동천 박사는 "표구 부분은 그리지 않고 마감하는 것이 상식이다. 표구 부분까지 그려진 것은 베끼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리지 못한 탓이며, 위조자가 아마츄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라 설명했다.

그림과 실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이동천 박사는 '계상정거도'와 실제 서취병 전경을 함께 보이며, "도산 옆 서취병 부분이 낮게 그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퇴계 이황의 <도산잡영> 등 서취병을 묘사한 서적까지 인용해 조목조목 '계상정거도'가 잘못 그려진 위작임을 밝혔다.

'계상정거도'를 두둔하는 미술사계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동천 박사는 "5월 26일 방송된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에서 미술사가 이태호 교수가 도산 옆 서취병이 실경에 의해 그려졌다고 주장한 것은 서취병의 낮은 부분을 높은 부분으로 속인 것"이라 폭로했다

"감정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믿지 않고 사실에 의해 감정해 가는 것이 감정의 시작"이라거나, "미술품 감정은 순간의 판단이 아닌 순간의 판단을 위해 쉼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 말한 이 박사의 학문은 수행과 다름 없었다. 조동섭 기자

# 경북 김천 · 문경 사찰 보물지정 예고

## 직지사 대웅전, 봉암사 극락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7일 경북 김천 직지사 대웅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5호)과 경북 문경 봉암사 극락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5호)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27년(1649)에 사승 상원, 계림 등이 중창했고, 지금의 대웅전은 영조11년(1735) 중건했다.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가구식 기단을 갖췄다. 용머리조각과 호형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는 계단 소맷돌은 형태와 결구법이 특이하다.

봉암사 극락전은 장흥 보림사와 함께 유이하게 현존하는 선문구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전각이다. 학계는 형태나 위치로 보아 조선 중후기 세워진 왕실 원당일 가능성이 높고, 기단과 초석은 고려조 것이라 추정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직지사 대웅전은 가구 구성 및 부재 표현기법이 조선후기 건축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봉암사 극락전은 독특한 외관과 건축수법 및 단청이 18세기 건축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직지사 대웅전과 봉암사 극락전의 보물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한국선학회 하계수련회

## 7월 12~13일선운사일원서

한국선학회(회장 김형두)가 7월 12~13일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선운사를 비롯해 불갑사 등 선찰과 법성포 마라난타 성지 등 선운사 인근 불교성지를 순례하며, 한기두 교수의 '조선 후기 선 논쟁'에 관한 특강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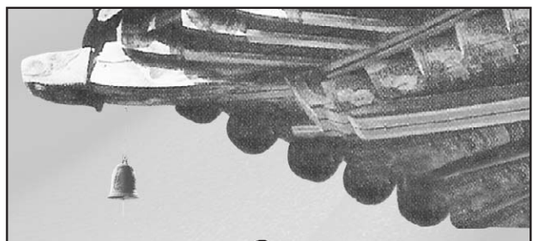
문의: 김방룡 운영위원장 010-8627-5308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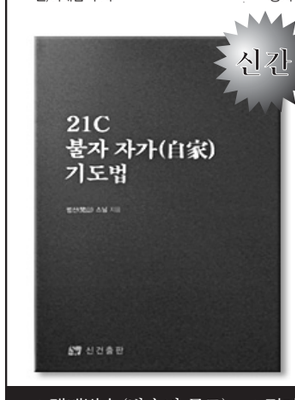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원사 여름 수련 대회
■기 간 : 제10차. 2008.8. 2 - 8. 5 (3박4일)
제11차. 2008.8. 11 - 8.14 (3박4일)
■장 소 : 강릉 소금강옆 자연경관이 수려한 성원사 수련관
■대 상 : 17세 이상 건강한 남 · 여
예불.염불선방법.참선의자세.불교기초교리. 사경.발우공양.묵언 등의 수행생활을 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접수처 :
TEL. 033)661-5736 성원사 종무소
TEL. 033)642-0142 강릉 포교당 성정사
TEL. 033)642-0143 성원 유치원 교무실
TEL. 02)3288-3386 서울포교당 정중선원
(대치4동 894-5포스코더샵 과 롯데캐슬 옆)
※ 성원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http://www.sungwonsa.org
http://www.sungwonsa.com
http:성원사.org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